

# 민족주의적 ‘위안부’ 담론의 구성과 작동 방식

-윤정모, 『에미이름은 조센삐였다』의 최초 판본과 개작 양상을 중심으로

이지은\*

## 목차

1. ‘민족주의-일본군 위안부’ 담론의 결합 양상
2. 민족 남성의 일본군 ‘위안부’ ‘실록’ 쓰기의 욕망
3. 역사(his-story)로 함몰하는 텍스트의 구조: ‘고백하는 어머니-기록하는 아들’
4. 텍스트 개작 양상과 “울타리” 밖에 남은 여자들
5. 결론을 대신하여

## 〈국문초록〉

이 글은 민족주의라는 비대한 이름의 내부를 분석적으로 고찰해 보려는 의도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본격화되기 전에 발표되어 ‘위안부’ 운동사의 발전과 함께 개작·재출간된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의 집필 맥락과 개작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는 당시의 ‘위안부’ 담론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으며 창작·개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1980년대 초반 일본군 ‘위안부’ 담론은 민족 남성의 민족 수난사 쓰기의 욕망에서 생산되었는데, 이들의 글쓰기가 일본군 병사의 시선이 투영된 문헌에 의존했다는 점은 매우 문제적이다.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는 민족 문제로 ‘위안부’를 다루는 문제들을 공유할 뿐 아니라, ‘남성의 글쓰기-재현되는 위안부’의 구도를 ‘기록하는 아들-고백하는 어머니’로 반복함으로써 순이의 발화를 아들의 역사(his-story) 쓰기로 함몰시켜버리는 근본적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일본

\* 서울대학교 강사

군 ‘위안부’ 문제가 본격화된 이후인 1997년 판본에는 피해자로서의 ‘위안부’가 아니라 생존자로서 강인한 ‘위안부’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남성의 인식/글쓰기로 수렴되는 텍스트 구조 속에서 부각되지 못했다. 한편,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에는 일본인 ‘위안부’, 필리핀 ‘위안부’, 성매매 여성, 기생 등 민족 안팎의 비가시화된 여성이 존재한다. 소설에서 이들은 배경이나 문학적 장치로만 드러나고, 기존 연구에서도 논의되지 못했다. 이 소설이 성폭력 문제를 전면에 다루고 있음에도 이들 존재가 망각되어 온 것은 비판적 성찰이 필요한 대목이다.

국문핵심어 : 일본군 ‘위안부’ 재현, 윤정모, 임종국,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 민족주의, 역사, 증언

## 1. ‘민족주의-일본군 위안부’ 담론의 결합 양상

1991년 8월 14일 김학순의 증언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본격화되었다.<sup>1)</sup> 김학순의 공개 증언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일본군 성노예제 해결을 위한 운동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김학순의 증언에 힘입어 문옥주, 강덕경 등 또 다른 증언자들이 나타났다. 같은 해 1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인이 군인·군속 및 그 유족과 함께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피해 배상 청구 소송(“아시아태평양 전쟁 한국인 희생자 보상청구사건”)을 제기했고, 이듬해 1월부터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가 시작되었다.<sup>2)</sup>

- 
- 1) 조선인 ‘위안부’의 최초 증언은 1975년 오키나와에 살고 있던 배봉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배봉기의 증언은 『교토통신』 등 일본 언론에 실렸고, 1984년에는 태국에 살고 있던 ‘위안부’ 피해자 노수복의 증언이 남한 언론을 통해 소개되기도 했으나 일본군 성노예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운동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 2)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운동의 역사는 윤미향, 『25년간의 수요일』(사이행성, 2016)과 ‘정의기억연대’ 홈페이지 참조.

김학순의 증언이 이처럼 피급력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은 '살아있는 증거'로서 피해 생존자의 출현과 여성계의 노력에도 기인하지만 일본 정부의 책임회피에 대한 한국 사회의 반일 감정 역시 일본군 '위안부' 운동에 대중적 지지가 결집되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민족주의는 타자와의 구별을 통해 '우리'를 정의하는데, 식민지배에 맞선 민족담론은 제국에 대항한 '민족'이라는 주체를 형성하면서 저항담론으로 기능한다. 문제는 이것이 저항담론이라 하더라도 민족을 단일한 주체로 상정하면서 또 다른 억압을 발생시킨다는 점이다. 특히 부계로 상상되는 민족과 '제국-식민지'의 젠더화된 관계가 착종되면서 여성은 민족이라는 단일한 주체 내부에서 억압되는 동시에 탈식민주의 서사에서는 '민족 전통의 담지자/재생산자' 혹은 '민족의 희생자'로 호명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조선인 '위안부'는 '유린된 민족'으로 의미화되면서 민족문제로 제출되지만, 이러한 담론은 순결 이데올로기를 강화함으로써 여성을 억압할 뿐 아니라 자국 남성에 의한 여성착취를 비가시화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일본군 '위안부' 논의는 이러한 민족주의 담론의 한계를 인식하고, 부계 혈통 중심의 민족주의가 여성혐오와 공모하는 지점에 문제제기를 해왔다. 민족주의 담론이 상정한 피해자 상을 해체하고, 그간 배제되고 억압되어 온 다양한 일본군 '위안부' 존재의 목소리를 (재)발견했다.<sup>3)</sup> 그런데 이러한 비판적 작업은 자칫 민족주의의 저항적 기

(<http://womenandwar.net/kr/history-of-movement/> 2019.6.23.)

- 3)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민족주의적 '위안부' 담론을 비판했던 선구적 논의로 김은실이 있다. 김은실은 민족담론을 통해 여성의 경험을 읽을 때, 군위안부 여성들은 개별적 욕구를 갖는 주체적 개인으로 파악되지 않고 국가나 민족을 상징하는 한에서 행위 주체성을 획득하게 된다고 비판한다. 우에노 치즈코는 위안부 문제가 민족주의적 연설로 포괄되는 과정에서 '강제-임의성'의 구분이 '창녀-순결한 여성'의 분리를 만들어내 기존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강화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야마시타 영애는 군위안부 문제에서 일본인 '위안부'를 누락한 것을 지적하며 초국적의 관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은실, 『민족 담론과 여성: 문화, 권력, 주체에 관한 비판적 읽기를 위하여』, 『한국여성학』 제10권, 한국여성학회, 1994; 우에노 치즈코, 이선희 역, 『내셔널리즘과 젠더』, 박종철출판사, 1999; 야마시타 영애, 박은미 역, 『내셔널리즘의 틈새에서』, 한울, 2012.)

능을 망각하거나, 혹은 식민지적 차이를 삭제해버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민족주의적 ‘위안부’ 담론의 난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곤혹스러운 텍스트가 1982년 발표된 윤정모의 중편 『에미 이름은 조세삐였다』이다. 이 소설은 김학순의 공식적인 증언이 있기 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여성(순이)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순이의 증언이 “아들에게 부계(父系) 혈통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아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sup>4)</sup>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순이의 삶에 대한 ‘남편의 거부-아들의 이해’로 서사가 발생·종결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순이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말하고 있음에도 그녀는 계속해서 ‘남편-아들’의 인정을 갈구하는 대상의 자리로 끌려간다. 다른 한편, 민족의식이 순이가 커밍아웃할 수 있는 지지대로 기능했다는 지적이 있다.<sup>5)</sup> 이는 ‘민족주의’라는 말로 손쉽게 소설의 한계를 지적하는 대신, 민족주의가 여성의 말하기에 혹은 ‘위안부’ 재현에 어떻게 작동하고 있느냐를 살피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를 심화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는 민족주의와 일본군 ‘위안부’ 담론이 서로가 서로를 호명하며 역동적으로 구성되어 왔다는 사실이 누락되어 있다. 기실 1991년 이전에도 드물게나마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민속학적 연구나 다큐멘터리는 존재했고, 이러한 문헌들은 ‘위안부’를 ‘민족의 피해자’라는 상징적인 기호로 만들어 냈다. 민족주의가 ‘유린당한 민족’의 상징으로서 일본군 ‘위안부’를 호명한 것이다. 이에 반해 1991년 김학순의 증언은 피해 당사자가 민족주의 정동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집중시킨 사건으로 볼 수 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윤정옥의 연구와

4) 김소륜,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일본군 ‘위안부’ 서사 연구』, 『국제어문』 제77집, 국제어문학회, 2018, 314쪽.

5) 이해령, 『그녀와 소녀들: 일본군 ‘위안부’ 문학/영화를 커밍아웃 서사로 읽기』, 『泮橋語文研究』 제47집, 반교어문학회, 2017.

1990년 『정신대 원혼의 발자취』의 연재, 그리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결성 등 여성주의 연구·운동의 흐름이 있었고, 이 토대 위에서 김학순의 증언은 그간 ‘민족주의-일본군 ‘위안부’ 담론’의 관계를 역전적인 방식으로 결합했던 것이다. 따라서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에서 민족주의가 일본군 ‘위안부’ 증언의 지지대가 되었다는 해석은 조금 더 세밀하게 따져보아야 할 문제다.

지금까지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 연구에서는 민족주의와 일본군 ‘위안부’ 담론의 관계가 매우 평면적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는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이 본격화된 이후의 시선을 텍스트에 투영한 결과이기도 하고,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의 집필 당시 담론 상황과 변모 양상에 대한 연구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는 1982년 12월 인문당에서 처음 단행본으로 발간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은 그보다 3개월 전인 82년 9월 『여성중앙』의 ‘긴급기획·권중부록’ 코너에 ‘임종국-윤정모 대담’과 함께 일부가 실린 바 있다. 불과 3개월 차이지만 『여성중앙』 게재본이 단행본으로 출간될 때엔 구체적인 부분이 꽤 바뀌었고, 결말도 크게 달라졌다. 또 1982년 인문당판 출간 이후, 88년 고려원, 97년 당대에서 출간될 때에도 계속해서 개작되었다. 79년 최초의 ‘위안부’ 증언자 배봉기의 삶이 다큐를 통해 한국에 알려지고, 84년 노수복의 방문, 90년 윤정옥의 『정신대 원혼의 발자취』 연재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설립, 91년 김학순의 증언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운동의 역사를 상기할 때,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는 중요한 역사적 국면을 통과하며 조금씩 변화해온 ‘유동하는 텍스트(fluid text)’인 것이다.<sup>6)</sup>

6) 유동하는 텍스트란 작가의 초안, 출판사의 교정판, 개정판, 영화 각색 등과 같이 여러 버전으로 존재하는 문학 작품을 의미하는데, 버전 사이의 변화는 작품과 사회 사이의 상호작용을 기록하기 때문에, 텍스트의 변화를 고찰하는 것은 텍스트가 접촉한 사회의 문화적 맥락과 텍스트를 의미화 하는 방식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문학 작품은 고정된 것으로 여겨지지만, 사실 그것들은 문화적 상황에 따라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유동적인 작업이다. (John Bryant, *The fluid text: A Theory of Revision and Editing for Book and Screen*, Ann Arbor : University of Michigan

이 글은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가 실린 최초 게재본을 확인하고, 이 소설이 기획·집필되던 당시 일본군 ‘위안부’ 담론의 맥락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후 개작 양상을 통해 민족주의적 ‘위안부’ 담론을 고정된 실체가 아닌 구성되고 변모하는 양상으로서 그 한 단면을 제시하고자 한다.<sup>7)</sup> 또한 기존 연구에서 누락되었던 필리핀 ‘위안부’와 기생 옥님의 일화를 적극적으로 논의의 장 안으로 가져오하고자 한다.

## 2. 민족 남성의 일본군 ‘위안부’ “실록” 쓰기의 욕망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는 『여성중앙』 1982년 9월호의 ‘긴급기획·권중부록’이라는 코너에 처음으로 실렸다. 이 ‘긴급 기획’은 일본이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그들의 침략을 미화 내지는 정당화하여 비뚤게 기록한 역사를 교과서로 삼아 2세교육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항하여 마련된 것이었다.<sup>8)</sup> 1982년 일본 역사교과서 파동은 그해 6월 『아사히신문(朝日新聞)』 등에 일본 역사교과서의 검정과정에서 ‘침략’을 ‘진출’로 바꾸게 한 것이 보도됨에 따라, 7월 중국 외무성의 공식 항의, 8월 한국 정부의 개정 요구

Press, 2002)

- 7) 소설의 제목은 조금씩 바뀌었는데, 기존 연구에서 구별 없이 사용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로 일괄 표기한다. 이 글에서 다룰 소설의 판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후 작품명과 판본만 표기)

형태	제목	서지사항
연속간행물	아들아, 에미의 이름은 『조센삐』였다	『여성중앙』 1982년 9월
단행본	네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	인문당, 1982
단행본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	고려원, 1988
단행본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	당대, 1997

- 8) 『眞想, 조선여자 정신대』, 『여성중앙』 1982년 9월호, 214쪽. 이 “긴급기획”은 “①대담증언=임중국(시인):윤정모(작가) 색지옥에 떨어진 섹스소포뮬과 “②현장소설=『정신대』101枚전재 아들아, 에미의 이름은 『조센삐』였다”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하 기사제목만 축약하여 『대담증언』,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여성중앙)로 표기하도록 한다.

등으로 이어지며 외교적인 문제로 비약되었다.<sup>9)</sup> 국내 언론은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나오기 전부터 「戰前으로의 복귀가 아니냐」는 일본 내의 비판 여론을 전달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비판하기도 했다.<sup>10)</sup> 이러한 국내외의 여론을 바탕으로, 『여성중앙』은 “일제 36년간 특히 우리 여성이 당한 치욕의 실상을 긴급대담”으로 기획했던 것이다.<sup>11)</sup>

「진상, 조선여자 정신대」는 임종국·윤정모의 대담과 윤정모의 소설 「아들아,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임종국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위안부’와 관련하여 선구적인 작업을 했던 인물이었다. 일찍이 「다큐멘터리 女子挺身隊」(『월간중앙』, 1973.11)를 쓴 바 있고, 재일학자 김일면의 『천황의 군대와 조선인위안부(天皇の軍隊と朝鮮人慰安婦)(三一書房, 1976)를 번역한 『정신대실록』(일월서각, 1981)을 발간한 바 있다.<sup>12)</sup> 한편, 윤정모는 1981년 『여성중앙』 중편 공모에 「바람벽의 딸들」이 당선된 후, ‘위안부’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막 탈고한 참이었다. 윤정모의 회고에 따르면, 그는 당시 현지처에 대해 쓰려다 “이 나라에 위안부가 생긴 유래를 찾다가 임종국 선생님의 《정신대실록》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sup>13)</sup> 『여성중앙』의 기획 전부터 임종국과 윤정모의 교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흥미로운 점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이라는 위기감이 이 둘을 지면으로 불렀다는 점이다.

윤: 먼저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소식을 듣고 어떠하셨는지요.

- 
- 9) 김보림, 「일본 역사교과서 파동과 그 파장:국내 대응 정책 담론의 지속과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일본교육학연구』 제8권 1호, 한국일본교육학회, 2004, 79~80쪽.  
 10) 鄭求宗, 「日本 개편高校교과서 「侵略역사」美化」, 『동아일보』, 1982.7.7.  
 11) 「대담중언」, 214쪽.  
 12) 임종국은 1981년 김일면의 책을 『정신대실록』(일월서각)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한다. 그런데 임종국은 이 책을 번역하면서 저자 김일면의 이름을 명기하지 않고 자신을 ‘편저자’로 표기한다.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텍스트의 흐름에 관해서는 이지은, 「조선인 ‘위안부’, 유통하는 표상」, 『만주연구』 제25권, 만주학회, 2018 참조.  
 13) 윤정모, 「작가의 말」,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 고려원, 1988.

임: 그들의 본색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싶자 잠이 오지 않더군요.  
 윤: 신경과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제국주의에 대한 단순한 항수라거나 우월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동아시아를 향한 어떤 제스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한국과 중국의 일본에 대한 감정이 어느정도인가 타진해보기 위해서랄까요.<sup>14)</sup>

임종국과 윤정모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파동을 언급하면서 대답을 시작하는데, 이들은 이를 일종의 ‘채침략’의 징후로 인식한다. 이어지는 대담에서 윤정모는 일본의 자위대 신설과 증강을 언급하고, 한국이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임종국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일본의 침략 수법을 상기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한손에 칼 한손에 여자”라고 한다. 또 ‘일본 민족성’을 “침략근성과 호색”<sup>15)</sup>이라고 규정짓기도 한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를 민족 수난의 상징이자 채침략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존재로 생각하며, 야만적인 “일본 민족성”의 증거로 인식한다. 민족적 적개심을 앞세운 임종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전시성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위안부’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이 대담이 이루어지던 1982년까지 ‘민족-남성’이 ‘위안부’를 이해하던 방식이기도 하다. 1981년 임종국을 ‘피넨이’라고 하여 발간한 『정신대실록』이나, 소설가 한백홍이 ‘위안부’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 소설보다 더 긴급하게 썼다는 『實錄 女子挺身隊 그眞想』(예술문화사, 1982)이 대표적인 예다. 공히 두 책 모두 “실록”이라는 이름을 달고, 일제의 잔학상을 고발하고, “실록에 바탕을 둔 진상기”를 남겨 “역사적 교훈”으로 삼겠다는 목적으로 쓰였다.<sup>16)</sup> 그런데 문제는 두

14) 『대담중언』, 214~215쪽.

15) 『대담중언』, 215쪽.

16) “우리는 이런 자료들을 엮기적 흥미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과거 세계사 오욕의 압권인 식민지 쟁탈 전쟁의 잔혹행위를 통하여 앞날의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강조-인용자)(임종국, 『이 잔혹의 기록을 정리하면서』, 『정신대실록』, 일월서

편의 “실록” 모두 일본에서 생산된 각종 전쟁기록물, 전쟁회고담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두 편의 “실록” 모두 인용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언급하고 있는 자료를 개략적으로나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이토 케이이치(伊藤桂一)의 『병사들의 육군사(兵隊たちの陸軍史)』(番町書房, 1969)와 같은 참전 작가의 회고나 츠지 마사노부(辻政信)의 『15대 1(十五對一)』(酣灯社, 1950)과 같은 참전 군인 회고록류, 그리고 다무라 다이지로(田村泰次郎)의 『춘부전(春婦傳)』(銀座出版社, 1947)처럼 전쟁체험을 재현한 소설류, ②위안소 관리인 야마다 세이키치(山田清吉)의 『무한병참(武漢兵站)』(図書出版社, 1978)이나 동원부장으로 직접 조선인을 강제 연행했다고 밝힌 요시다 세이지(吉田清治)의 『조선인위안부와 일본인(朝鮮人慰安婦と日本人 : 元下關勞報動員部長の手記)』(新人物往來社, 1977), ③‘위안부’로 전장에 다녀온 일본 여성을 인터뷰하여 이를 바탕으로 위안소 실태를 밝혔던 센다가코(千田夏光)의 『중군위안부(從軍慰安婦)』(双葉社, 1973), ④일본에서 ‘여인의 전기(女の戦記)’ 시리즈 1권으로 출간된 조선인 ‘위안부’ 김춘자의 수기 『여성의 병기-어느 조선인위안부의 수기(女の兵器-ある朝鮮人慰安婦の手記)』(浪速書房, 1965)이다.

①~②는 군인·군속의 시선에 포착된 ‘위안부’가 회고나 소설의 형식으로 재현된 자료이고, ③~④는 표면적으로 ‘위안부’ 여성의 발화로 되어있지만, 남성 인터뷰어에 의해 편집되어 기록되거나(③), 전쟁기록물의 홍수 속에서 상업적인 목적 하에 외설적으로 윤색된 자료이다.(④) 요컨대 ①~④ 모두 남성 ‘기록자’에 의해 재현된 ‘위안부’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각, 1981, 305쪽.)

“이래서 나는 小説草稿 “忘却地帯”를 미루고 實錄에 바탕을 둔 眞相記를 整備해 보기로 했던 것이다. (중략) 이제 그나마 살아 있는 証인들이 가기前에 悲憤을 풀어 보고 그 眞想을 남기고져 나름대로의 使命感에서 資料를 蒐集하고 分析하고 이를 考証하여 恥辱의 挺身隊史를 엮어 보았다. 挺身隊를 모르고 民族 受難史를 말할 수 없다.”(강조-인용자) (한백홍, 『머리말』, 『實錄 女子挺身隊 그 眞相』, 예술문화사, 1982.)

당시에는 일본군 위안소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증언자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임종국과 한백홍은 일본에서 생산된 자료 속에서 위안소 제도의 실체를 증명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료는 근본적으로 일본군 병사의 시선에 포착된 ‘위안부’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는데, 민족·남성의 ‘위안부’ “실록”쓰기는 언어적·민족적 번역을 수행했으나 ‘위안부’를 성애화하는 남성적 시선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했다.<sup>17)</sup>

요컨대 민족 남성의 일본군 ‘위안부’ “실록” 쓰기는 일본에 대한 민족적 적개심을 표출하고 그들의 만행을 밝히려는 욕망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정작 다루어져야 할 전시성폭력 문제는 누락되어 있다. 위안소 제도를 가능하게 하고 지탱하게 했던 가부장제 하 여성 섹슈얼리티의 성애화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오히려 일본군 병사의 시선을 비판 없이 수용함으로써 ‘위안하는 여성’이라는 전제를 공유하기까지 한다. ‘실록(實錄)’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은 기록”이라는 뜻과 장르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사실에 공상을 섞어서 그럴듯하게 꾸민 이야기나 소설”이라는 뜻 모두 가지고 있는데, 이 모순적 의미를 민족 남성의 일본군 ‘위안부’ “실록”은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그들은 일본에 의해 왜곡되고 은폐된 역사에 반하여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은 기록”을 제출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은 사실의 바탕 위에 ‘제국-민족의 남성’이 공유하는 남성의 판타지를 투사한 ‘위안부’ 상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었다.

임종국-윤정모의 대답에도 민족 남성의 ‘위안부’ “실록” 쓰기의 문법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첫째, 이 기획은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계기로 마련된 것이었고, 재침략의 위기의식을 전달하기 위해 일본군 ‘위안부’를

17) 가령 임종국은 “병원에 근무하는 위안부들은 병사들의 오물까지 취급했던 만큼 그들의 심정을 잘 알아서 오히려 간호부들 보다 더 알뜰하게 뒷바라지를 했다고 한다. 흡사 병사의 가족 같은 간호 분위기가 조성되었다.”와 같은 이토 케이이치의 서술을 비판 없이 전한다. (강조-인용자)(임종국, 앞의 책, 135쪽.) 더 자세한 논의는 이지은, 앞의 글, “3장 ‘제국-민족’ 남성의 분열과 공모” 184~192쪽 참조.

호명하고 있다. 이 대답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일제의 만행을 증거하면서 침략 받은 민족의 상징적 기호로 동원된다. 둘째, 성애화된 '위안부' 재현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대답에는 일본군의 야만성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집단 강간' 사건이나, '위안부'에 관한 선정적인 에피소드가 소개되어 있고, '위안부'를 지칭하는 말로 “섹스소모품”, “섹스특공대”, “도라지꽃” 등과 같은 표현이 사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여성 대중지의 자극적인 편집이 더해져 표지에는 성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여성의 신체가 실려 있고, “色지옥에떨어진섹스소모품”과 같은 제목이 대형 활자로 눈에 띄게 배치되어 있다.

셋째, 피해자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원되는 순결이데올로기는 민족주의와 결합하여 일본인 '위안부'를 배제하고 피해 생존자를 억압하는 논리를 만들어낸다.

윤: 본격적으로 표면화된 건 중일전쟁 이후부터던가요.

임: 그렇죠. 군권력이 조직적으로 상해 육군위안소를 개설한 것이 1938년 정월입니다. 그때 위안부는 1백명인데 80명이 한국어자였고 나머지 20명이 일본 여성이었습니다. 일본여성 20명은 거의 창녀출신에다 성병환자거나 보균자였어요. 반면 한국 여성은 대부분 성경험이 없는 처녀들이라 성병이 없었죠. 여기에서 그들은 한국 여성을 정신대로 끌어들이 착안을 한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병력의 20프로가 전쟁이 아닌 성병으로 전투력을 상실하고 있었거든요.<sup>18)</sup>

실제로 '위안부' 징모 과정에서 식민지 대만과 조선에서는 빈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징모업자의 취업 사기가 많았으며, 만 21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일본에서 징모 대상자는 21세 이상의

18) 『대담증언』, 217쪽.

“매춘” 경험자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일본이 1925년 『추업(醜業)[매춘] 사용 목적 부녀 매매 단속에 관한 국제조약』 및 『부인 및 아동의 매매 금지에 관한 국제조약』을 비준하였으나, 식민지는 적용 제외 지역으로 두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민지에서는 “21세 이상”이라는 연령 제한이 적용되지 않았다.<sup>19)</sup> 물론 ‘위안부’ 징모 방식에 있어 식민지적 차이를 강조하는 것이 곧바로 피해(자)의 등급을 나누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인신 구금 상태에서 성 노예 생활을 했던 ‘위안부’는 그녀의 직업과 민족에 상관없이 전시 성폭력의 피해자이다. 반대로, ‘위안부’ 피해의 무게를 져 수 없다는 원칙이 ‘제국-식민지’ 여성의 처한 구조적 차이를 무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위 대답에서는 ‘제국-식민지’ 여성이 다른 착취 구조에 있었다는 점을 인지하지만, 그것을 차별적 법제도와 ‘식민지-빈곤-여성’이라는 취약한 조건을 통해 사유하지 않는다. 징모 과정에서 식민지 여성이 겪은 차별은 ‘정조’ 또는 ‘순결’이라는 여성 억압적 이데올로기로 치환되어 버리고, 이는 ‘피해자의 자격’으로 이해된다. ‘일본 여성-창녀-성병’, ‘조선 여성-처녀-청결’과 같은 이분법적 의미 연쇄를 통해 ‘짓밟힌 처녀=조선 여성=피해자’라는 의미를 만들어내 버린다. 이러한 의미망이 작동하는 이상 ‘위안부’ 피해자는 ‘조선 여성’으로 복귀할 방법이 없다. ‘조선 여성-처녀-청결’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위안부’ 피해자는 ‘처녀’를 잃음으로써 ‘조선 여성’에도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위 대답의 ‘위안부’ 이해 방식은 ‘민족-남성’이 ‘제국-남성’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하고, 민족의 수난사를 웅변하는 데에만 쓰일 뿐, 실제로는 ‘위안부’ 피해자의 입을 막는 것으로 작동한다.

대답은 다시 한 번 ‘재침략’에 대한 대비를 강조하며 끝을 맺는다. 윤정모는 임종국에게 그간 일제 강점기의 자료를 수집해 온 경위를 묻는데, 임종국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19) 윤명숙, 최민순 역, 『조선인 군위안부와 일본군 위안소제도』, 이학사, 2015, 110~111쪽.

임: 해방이 되었을 때 나이 17세였죠. 그때 일본 패주군이 나에게 해방을 어떻게 생각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해방이 되어 기쁘다고 하니깐 그 군인의 인상이 험악해지는 거예요. 나는 무섭기도 해서 얼른 그렇지만 당신들이 패망한 건 안됐다고 했죠. 그랬더니 씨익 웃으며, 좋아, 20년 후에 보자, 그러더군요. 그러다가 한일조약 운운할 때 퍼뜩 그 병사가 하던 말이 떠오른 겁니다. 이거 안 되겠다 싶더군요. 그래서 나 하나라도 무장해야겠다 싶어 여기저기를 뒤져 수탈사에 관한 자료를 모은 겁니다.

윤: 정말 20년만에 다시 한일조약이 맺어졌으니... 게다가 정신대가 지금 관광기생과 연결되고 있으니 몹시 착잡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sup>20)</sup>

결국 이 대답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제의 재침략에 대한 불안 위에서 진행되었고, 그 침략의 구체적인 대상에는 '민족 여성의 몸'이 놓여 있다. 일제 36년의 가장 참담한 수난사가 '위안부'라면, 20년 후 돌아온 일본에 대한 불안은 "지금의 관광기생"이라고 강변한다. 이는 새로울 것도 없는 제국주의의 은유인데, 문제는 그에 맞선 민족주의 역시 이를 공유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도는 민족 남성의 "정신대실록" 쓰기의 도식과 완전히 일치한다.

### 3. 역사(his-story)로 함몰하는 텍스트의 구조: '고백하는 어머니-기록하는 아들'

1982년 12월 인문당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된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

---

20) 『대담증언』, 219쪽.

(이하 『에미 이름은』으로 약칭)는 아버지의 사망을 알리는 전보로부터 시작한다. ‘나’(배문하)는 부친의 부고를 받고 상가(喪家)에 도달하지만, 부친은 이미 화장된 후다. 부친은 생전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자와 결혼하여 살았는데, 한번도 ‘나’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다. ‘나’는 자신에 대한 아버지(배광수)의 강한 부정—“넌 어찌면 그렇게도 쪽발이를 닮았나?”<sup>21)</sup>—과 어머니(순이)의 강한 긍정—“아니다! 넌 한국 사람이다! 배광수의 아들이야!”<sup>22)</sup>—사이에서 혼란스러운 유년기를 보냈는데, 부친은 죽는 순간까지 ‘나’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다. 조출한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끝내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을 건네고, 어머니는 평생 숨겨왔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털어놓는다. 어머니의 과거를 알게 된 후, ‘나’는 부모를 이해하게 되고 소설은 끝이 난다.

82년 9월 『여성중앙』의 ‘긴급기획’에 실린 『에미 이름은』은 순이가 과거를 털어놓는 부분에서 결말까지로, 완성본 분량의 절반 정도이다. 아래의 편집자 주(註)에서 『에미 이름은』 집필의 문체의식과 잡지의 기획 의도를 엿볼 수 있다.

『200만원고료여성中央 여류 중편소설 공모』에 당선한 작가 윤정모는, 『엔』화에 눈이 먼 일부 철없는 한국 여자들과 『관광기생』, 『현지처』를 만나러 현해탄을 무시로 건너온다는 볼품없는섬사나이들을 경계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하나의 소설을 구상했다. 침략자 군국일본에 의해 무참히 희생된 『조선여자 정신대』란 이름의 처참한 제물에 가해진 끔찍한 만행을 고발하자는것이바로 그것. 그녀는 4년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증언을 들어 전작 장편 <끈>을 탈고해 이 가을에 상재하게 되었다. 『여성中央』은 윤정모의 이 신작 장편 <끈>에서 『어머니의 고백』편을 발췌해 미리실으면서 역사를 왜곡

21)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인문당), 19쪽.

22) 위의 책, 21쪽. (‘한국 사람’은 1988년 고려원 판에서 ‘조선 사람’으로 바뀐다.)

· 날조하고 있는 일본의민지못할 속셈을 경계하고자 한다.(편집자  
註)<sup>23)</sup>

인용문에는 「에미 이름은」이 기생관광, 현지처를 만나러 오는 일본 남성을 경계하기 위해 구상되었다는 집필의도가 소개되어 있다. 이는 앞서 대담의 논지와 일치하는 것으로 관광기생이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여성착취가 아닌 '외세 침략'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소설의 본래 제목은 「끈」이고 게재된 부분에는 따로 「어머니의 고백」이라는 임의의 제목을 붙였음을 알 수 있다. 문체적인 것은 민족 남성의 “실록” 쓰기의 문법이 「에미 이름은」에서도 ‘고백하는 어머니-기록하는 아들’의 구도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편집자가 「어머니의 고백」이라 부른 『여성중앙』 판 「에미 이름은」은 “아들아, 니가 소설을 써서 당선하던 날 나는 꼭 정신대 얘기를 들려주고 싶었다.”<sup>24)</sup>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이미 첫 문장에서 순이는 ‘아들=소설가(기록자)’를 호명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어머니의 이야기는 붓물처럼 쏟아져서 나는 심한 혼란을 느꼈다. 더우기 남방 지명에 어두운 나로서는 어머니가 일컫는 지역을 명확하게 간파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필리핀…그 순간 내 기억의 가느다란 현(絃)이 땡-하고 울린 것은 아버지의 정용지 역시 필리핀이었다는 사실이었다.

「잠깐요, 어머니.»

나는 먹다 둔 소주와 잔 두 개를 가져왔다. 이제부터 내 모든 기억을 동원해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정리해야 한다.

「그런데 그 때가 몇 년도였지요?」

나는 소주잔을 권했다.

23)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여성중앙), 220쪽.

24) 위의 책, 220쪽.

「해방 전 해의 초봄이었다.」

「그럼 경남반(경남반) 동원 때에…」

「그건 나도 모르겠다. 아뵘든 내가 열 살될 무렵부터 순사나 면서기가 마을에 드나들기만하면 꼭 동네쳐너 몇 사람은 떠날 일이 생기곤 했지. 그때 소만국경이나 중국쪽으로 끌려갔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자세한 건 모르겠구나.」

「떠나던 해에 어머니 연세는 어떻게 되셨어요.」

「내가 말하지 않더냐. 18세 때 고아가 되었다고. 그게 바로 집 떠난 해의 내 나이란다.」

목이 말랐던 것일까. 어머니는 단숨에 술잔을 비웠다. 부모들 앞에서 오빠 대신 떠날 수 있었던 어머니의 경우는 그나마 나은 편이라고 할까. 패전이 가까와지자 일본인들은 처녀들뿐만 아니라 아낙네들까지도 마구잡이로 몰이해했다. 길에서나 들녘에서 닥치는 대로 잡아갔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이별의 말 한 마디 전하지 못한 채 남방 최전선으로 끌려가 소모품으로 사라진 여성들은 또 얼마나 되는가. 그렇게 포획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성명이나 인원수에 대한 기록조차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확실한 수자를 밝혀낼 수가 없다. (강조-인용자)<sup>25)</sup>

인용문은 순이의 이야기가 본격적인 ‘위안부’ 생활로 접어드는 부분이다. 어머니가 필리핀에 있었다고 하자 문하는 아버지의 징용지를 떠올리며 과거를 추리하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문하는 수동적인 청자의 자리를 넘어서 “기억”하고 “정리”하는 자를 자칭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 “그때가 몇 년도였지요?”는 순이의 말하기가 시작된 이래 문하가 던진 첫 질문이다. 이때부터 문하는 인터뷰어와 같은 역할을 하며 순이의 경험을 묻고 “고백”을 기록한다. 나아가 강제 징용이 이루어지던 일체강점기 식

25) 위의 책, 222~223쪽.

민지 조선에 대한 지식을 덧붙이면서 부연 설명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하의 역사 쓰기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순이의 삶을 복권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핏줄을 확인하고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는데 바쳐진다.

문하야, 내 얘기는 끝났다. 단 한가지, 내 어머니가 우리 오빠를 낳고, 배내옷에달아주었다는 삼줄... 길고 긴 삼줄을 또아리로 엮어 달아주었다는 그 삼줄을 나는 너의 텃줄을 끊으면서 생각했단다. 나는 오빠보다 더 긴 삼줄을 너에게 달아 주리라고. 아들아, 네가 이 에미를 부인해도 좋다. 그러나 그 삼줄은 끊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이 땅에 살아온 배씨집안의 영원한 끈일테니까...

나는 어머니의 손을 끌어잡았다. 이제야 나는 아버지를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어머니...(강조-인용자)<sup>26)</sup>

순이는 자신의 과거를 모두 털어놓은 뒤 다시 한 번 문하가 배광수의 아들임을 강조한다. 어머니인 자신을 부정하더라도 문하가 “배씨집안의 영원한 끈”임은 부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애초 소설의 제목이라는 “끈”의 의미가 ‘배광수-배문하’로 이어지는 혈통이라는 것이 분명히 밝혀지는 부분이다. 그리고 문하의 이어지는 답은 “이제야 나는 아버지를 이해했”다는 것이다. 결국 ‘어머니의 고백’은 ‘기록자’를 자처했던 아들에 의해 “피해의식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사람”이었던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만다. 그리고 문하는 “이 땅에서, 그 사람에게 의해 그 사람의 아들”이 된다.<sup>27)</sup>

인용문의 밑줄 친 부분은 인문당판에서 “당신이 옳았어요, 어머니. 어머니를 낳고부터 배 문하로 키웠을 테지만 나는 이제야 막 배 광수의 아들 배 문하로 완성되었어요.”<sup>28)</sup>로 바뀐다. 언뜻 일본군 ‘위안부’였던 순이의 삶이 아들에 의해 ‘옳았다’고 승인되는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

26) 위의 책, 223쪽.

27) 위의 책, 같은 쪽.

28)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인문당), 100쪽.

텍스트가 변화해온 궤적을 쫓아보면, 위의 문장은 어머니가 줄곧 주장했던 ‘배광수의 아들 배문학’이 옳았다는 의미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제야 막 배 광수의 아들 배 문학으로 완성”되었다는 이어지는 문장도 이를 뒷받침한다. 결국 ‘고백하는 어머니 - 기록하는 아들’의 구도는 아들의 혈통 확인으로 귀결되고, 이를 통해 문하는 부계 민족의 역사(쓰기)를 이어가게 된다. 이때 어머니의 고백은 아들의 혈통을 보증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동시에 그런 한에서 어머니는 민족의 범주 안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에미 이름은』은 인문당 판으로 옮겨가면서도 ‘제국-민족’ 남성이 생산·번역한 일본군 ‘위안부’의 담론 구조를 답습하는 근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럼에도 인문당 판에서는 순이를 ‘나’로 하는 발화가 강화되면서 작품 말미에 소설 전체의 논리 구조에서 벗어나는 발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렇지만 나의 변한 모습을 왜 꼭 위안부 노릇을 했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할까. 나는 그것이 안타까웠다. 내가 변한 것이 살아남기 위해 내 스스로 변모한 것이라고는 왜 생각지 못했을까. 사람은 누구나 변한다. 어떻게 변한다 해도 내가 조선 여자란 사실만을 전혀 변할 수가 없지 않겠니. 그 양반은 왜 내가 조선 여자란 사실만을 보지 못했을까. 그저 조선 여자라는 것만... 자기와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피부를 가진 그것만 염두에 두기를 간절히 바라 적도 있었다. (...) 당신은 내 이름을 생각해 보라. 지금 나는 순이이고 죽을 때까지 순이다. 제발 잊자. 지난 일 따위는 씻은 듯이 잊어야 한다.....(강조-인용자)<sup>29)</sup>

인용문에서 순이는 폭력적인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내 스스로 변모한 것”이라 말한다. 자신의 과거가 생존을 위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행

29) 위의 책, 97쪽.

위였음을 강조하고, 그럼에도 변할 수 없는 자기 정체성을 간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위 발화는 순이가 자신의 정체성을 '조선 여자'라는 민족에 기대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순이'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선언이기도 하다. 소설의 제목이 '에미 이름은 조센삐'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당신은 내 이름을 생각해 보라, 지금 나는 순이이고 죽을 때까지 순이다"라는 발화는 중요하다. 순이를 '나'로 서술하는 대목에서는 전체 서사의 논리를 거슬러 '내 이름은 순이'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백하는 어머니-기록하는 아들'이라는 구도는 당대 '위안부' 담론의 구조이자 소설이 민족주의적 서사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이다. 그러나 위의 장면은 구술 발화와 기록이 충돌하는 지점이며, 이 충돌이 서사의 주요한 의미 요소가 되지 못한 것은 누가 기록하느냐에 따라 누구의 목소리가 삭제되고 어떤 주장이 누락되는지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 4. 텍스트 개작 양상과 "울타리" 밖에 남은 여자들

『여성중앙』에 실린 『에미 이름은』의 주된 내용은 순이를 포함한 조선인 '위안부' 일행이 포로수용소에 도달하기까지 여정이다. 순이 일행은 필리핀 여자를 길잡이로 하여 필리핀 밀립 지대를 헤매다 패주하는 일본군을 만난다. 식량과 의료품이 부족했던 패주군은 부상병을 안락사를 시키려던 참이었는데, 순이는 살려달라는 배광수의 조선말을 우연히 듣게 되고 조선 여성들은 합심하여 그를 구해준다. 포로수용소에 도착하기까지 순이 일행의 고난은 인문당판으로 옮겨가면서 보충되었는데, 그중 현자인 필리핀 '위안부'의 역할이 강조된 장면은 주목할 만하다. 필리핀 여성에 관한 삽화는 패전 후 제국의 통치 권력이 비어있는 지대에서 민족주의적 '위안부' 서사가 또 다른 폭력과 연대를 어떻게 상상했는지 엿볼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필리핀 여성은 아주 훌륭한 길잡이였다. 그렇게 며칠을 걸었다. 그런데 밀림으로 들어섰을 때 우리는 여기저기서 이미 상해 가고 있는 수많은 시체들을 보았다. 모두 여자들이었고 죽창에 찔려 살해된 모습이였다. 다행히 조선 여자들은 아니었다. 알고보니 필리핀 게릴라들이 민간인 일본 여성들에게 보복을 가한 것이었다. 그 참혹한 시체들 사이에는 젓먹이도 함께 죽어있었다. 밀림이 끝나는 지점에서 우리들 역시도 그 게릴라들을 만났다. 그들은 모두 국방색 자루 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대창을 들고 있었다. 남자가 일본말로 우리가 죽어야 할 이유를 말해 주었다.

“너희들 그 육신은 우리 거야. 우리 걸 뺏아먹고 살찌웠으니까. 우린 그걸 되돌려 받아 여기 이 나무들의 거름이나 해야겠다.”

우리는 일본 여성이 아니다. 너희들 것을 고의로 뺏은 적이 없고 해명을 해야 할 텐데도 모두 겁에 질려 입을 열지 못했다. 아마 그 필리핀 길잡이가 없었더라면 우린 모두 개죽음을 당하고 말았을 것이다. 게릴라들이 죽창을 겨누어들 때 필리핀 여자가 앞으로 나서서 재빠른 말로 무언가를 설명했고 사나이들은 필리핀말로 몇 마디 물어본 후 길을 비켜주었다. 우리는 이제 죽지 않아도 되었던 만 모두 오금이 붙어 한동안 꼼짝할 수가 없었다.(강조-인용자)<sup>30)</sup>

인용문은 순이 일행이 필리핀 여자에 의지해 밀림을 빠져나가고 있는 장면이다. 순이 일행은 밀림에서 죽창에 찔려 살해된 무수한 시체를 만났

30) 위의 책, 80~81쪽.

해당 부분의 『여성중앙』판은 다음과 같다. “필리핀 여성은 아주 훌륭한 길잡이였다. 그렇게 며칠을 걸었을 때 우리는 어느 밀림에서 수많은 시체들을 보았다. 모두 여자들이었고 죽창에 찔려 살해된 모습이였다. 알고 보니 필리핀 게릴라들이 일본 여성에게 보복을 가한 것이었는데 그 시체 속에는 젓먹이 어린애도 함께 죽어 있었다. 그 밀림이 끝나갈 때쯤 다시 게릴라들이 나타나서 우리 앞을 가로 막았다. 그들은 모두 국방색 자루 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대창을 들고 있었다. 그 때 맨 앞에 섰던 길잡이가 필리핀말로 재빠르게 무언가를 이야기했고 게릴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비켜주었다.”(『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여성중앙), 227쪽.)

는데, 시체는 “모두 여자들이었다”。 순이 일행은 이들이 “다행히 조선 여자들이 아니”었음에 안도한다. 죽은 여자들은 “민간인 일본 여성들”이었고, 시체 중엔 젓먹이도 포함되어 있었다. 인용문에서는 일본 제국의 힘이 몰락하자마자 일본의 여성들이 피식민지 남성에게 제일 먼저 보복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 게릴라들은 무력적 우위에서 여성에게 보복을 가할 때엔 제국의 언어를 사용하고, 순이 일행이 피식민지 출신임을 확인할 때엔 자민족의 언어를 사용한다. 언어 사용에 관해서는 순이 일행을 일본인으로 착각하여 일본어를 사용하고, 자민족 여성과 대화할 때는 그들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단순하게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제국의 군대가 패주한 자리에 피식민지 남성이 제국의 언어를 구사하며 제국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보복을 가하는 이 장면은 ‘제국-식민지’ 힘의 관계가 역전될 때, 가장 취약해지는 존재가 여성이며, 이때 제국의 언어가 식민지 남성에게 고스란히 이양될 수 있다는 무의식적 불안감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순이 일행은 살아남기 위해 일본 여성과 자신들을 분리해야 하지만 눈앞에 벌어진 참혹한 광경에 겁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이때 필리핀 여자가 나서서 증채를 해 준 덕에 조선 여자들은 살아남는다. 필리핀 여자는 이후에도 민가에서 먹을 것을 얻어다주며 조선 여성들을 돕는다. 순이는 당시를 회고하면서 길잡이 역할을 해주었던 필리핀 여성에게 특별한 고마움을 전한다. 일본인 ‘위안부’가 소설 전체에서 일관되게 외설적이거나 나약하게 그려져 있음을 상기할 때, 같은 처지인 점령지 ‘위안부’ 여성은 연대의 대상으로 상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여성연대가 소설을 관통하여 일관되게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조선 여성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현지 여성들의 “정조 관념”을 폄훼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인용문은 『에미 이름은』이 일본의 패전 이후 점령지 ‘위안부’ 여성은 연대의 대상으로, 피식민 남성은 언제나 제국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위협적인 자들로 여겼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라 하겠다.

이후 『에미 이름은』은 88년 고려원에서, 97년 당대에서 재출간된다. 두

번 모두 다소 개작이 이루어지는데 97년 판본에는 88년 고려원판 출간 당시 수정한 부분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을 미루어 보아, 두 판본 모두 82년 인문당판을 저본으로 삼아 각각 개작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먼저, 88년 고려원 판은 다른 판본과 비교하여 아버지 배광수를 더욱 부정적으로 묘사한다. 가령,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질긴 악연”<sup>31)</sup>이라는 표현을 덧붙이지만 명복을 빌어주는 부분은 삭제해 버린다.<sup>32)</sup> 이와 함께 “피의 국적”이라는 표현이 고려원 판에서만 반복적으로 등장하여<sup>33)</sup> 혈통에 대한 문하의 집착과 불안을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극 중 배문하가 아버지에게 항의하는 의미로 보낸 소설 제목이 ‘끈’에서 ‘굴레’로 바뀐다. 언급했듯, ‘끈’은 ‘배씨 집안의 혈통’을 의미하는 상징적 단어로 소설 전체의 제목으로 생각했을 만큼 『에미 이름은』의 주제와 직결되는 제목이다. 이에 반해 ‘굴레’는 고려원 판본에만 등장하는 제목인데, 흥미로운 점은 윤정모의 자전적 소설 『굴레』가 존재한다는 점이다.<sup>34)</sup>

31)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고려원), 54쪽.

32) “어쨌거나 아버지를 죽게 한 범인은 일제에 대한 피해의식 바로 그것이다. 평생 망령에 시달려 온 사람은 죽어서야 안식을 찾는다면, 부디 넋이나마 편안히 잠들기를 간절히 빌고 싶었다.”(『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인문당), 53쪽) 고려원판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삭제된다.

33) 가령, “비록 나는 한국인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해도 나는 어머니의 고백을 선뜻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다.[되어 있는 것일 까?]”(인문당, 60쪽[당대, 106쪽])와 같은 표현은 “비록 내 피의 국적이 확실해졌다 해도 나는 어머니의 고백을 선뜻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다.”(58쪽)로 바뀐다.

34) 윤정모의 회고에 따르면 『굴레』는 1975년 『세대』지에 응모했다가 최종심에서 떨어진 작품이다. 이후 1991년 단편집 『빛』에 수록되어 출간된다. 『굴레』는 배수하가 결혼을 통해 가족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수하의 아버지 배광옥이 어머니를 떠나 ‘안동 여자’와 ‘옥정동’에서 살고 있다는 설정은 『에미 이름은』과 매우 유사하다. 『굴레』의 주인공 수하의 가족관계나 아버지를 떠나오는 계기 등에는 윤정모의 자전적인 일화가 반영되어 있다. 『에미 이름은』의 문하가 쓴 소설에 관해서는 1982년 인문당판에서부터 등장하고, 이에 대한 ‘안동 여자’의 언급이 『굴레』 내용과 흡사한 것으로 보아 윤정모는 『에미 이름은』을 쓰던 당시부터 『굴레』를 염두해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에미 이름은』과 『굴레』의 자전적 요소와 상호텍스트성에 관해서는 후고에서 다루기로 한다. 『굴레』에 관해

1997년 당대에서 출간된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는 삼화를 넣고, 책 뒷부분에 『내가, 여성이 되어』라는 자전적 이야기를 보태어 단독 작품으로 단행본을 출간하였다. 1997년이던 정대협 결성(1990.11) 및 김학순의 공식증언(1991.8.14.) 이후로, ‘위안부’ 문제가 본격화되고 법적 투쟁이 이어지던 때이다. 이러한 맥락을 반영하듯, 1997년 책의 맨 앞에는 “정대협을 이끌어 오신 우리의 보배로운 선배 이효재, 윤정옥 선생님께서 바친다.”라는 헌사가 붙어 있다. 이는 82년 인문당판, 88년 고려원 판 『작가의 말』에서 임종국에게 감사를 표시했던 것과 대조된다. 또, 1997년 당대 판 『재발간에 부쳐서』에서는 15년 전 쓴 이 책을 재출간하게 된 이유가 “정신대대책협의회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더 이상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일본은 하루빨리 범죄 인정과 사죄, 법적 배상을 해야 할 것이며 이 책도 그 책임 추궁에 한몫의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히고 있다.<sup>35)</sup> 이러한 당대 맥락에 맞게 텍스트 내부에도 약간의 변화가 발견된다. 조선인 ‘위안부’들이 고초를 겪으면서도 “우린 살아서 이 속임수를 알려야 해”<sup>36)</sup>라고 결의하는 부분이나 조선 여자들은 “고통을 겪을수록 더욱 강해졌”<sup>37)</sup>다고 말하는 부분에서는 피해자 ‘위안부’가 아니라 생존자로서 강인한 ‘위안부’ 상을 만들어내려는 의도가 읽힌다.

한편, 『에미 이름은』은 오랜 시간 동안 개작·재출간되고 논의되었던 작품이지만 소설에는 여전히 비가시적 존재로 남아있는 여자들이 있다. 문하는 아버지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그에 관한 소설을 써 보낸 후 “여자를 샀다.” “여자를 맘껏 희롱하고 나면 목욕한 뒤처럼 개운해질 것” 같아서 다.<sup>38)</sup> 그리고 그보다 전인 고등학교 2학년 때엔 어머니가 자궁병으로 하혈한 것에 구토증을 느껴 집 밖으로 나가 우연히 만난 옥님을 강간했

서는 윤정모, 『작가의 말』, 『빛』, 東亞, 1991, 299쪽 참조.

35) 윤정모, 『재발간에 부쳐서』,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 당대, 1997, 8~9쪽.

36)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당대), 126쪽.

37) 위의 책, 143쪽.

38)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인문당), 11쪽.

다. 옥님은 중학교 졸업 후 권번으로 간 국민학교 동창인데 곧 ‘머리를 올릴’ 거라는 소문이 있었다. 문하는 옥님을 약수터로 유인했고 “서둘러 그 애를 범했다.”<sup>39)</sup> 그리고 열흘 후 째 옥님이 머리서방에게 소박을 맞고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후 소설 속에는 옥님에 대한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고, 결말에 이르러서야 문하의 독백으로 옥님이 잠깐 언급된다.

아 참,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어머니, 옥님이 있죠, 몇 달 전 신촌에서 봤어요. 산전수전 다 겪은 옥님이 조그만 대포집을 경영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슬픈 일도 기쁜 일도 없었지만 그러나 나와서 일이 결코 후회스러운 추억은 아니었다고…… 다 그렇고 그런게 인생이 아니냐면서 하얗게 웃더군요.

그리고 나는 꿈길을 열었다. 그때 나는 보았다. 내 울타리로 들어서서 아버지의 모습을.<sup>40)</sup>

인용문은 문하가 어머니의 과거를 모두 알게 된 후, 아버지를 마침내 이해했다고 여기는 장면이다. 이야기의 끝에 문하는 옥님과 재회를 말한다. 문하의 강간으로 인해 권번에서 쫓겨나듯 떠난 옥님은 신촌에서 대포집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문하는 옥님이 자신과의 일을 “결코 후회스러운 추억은 아니”라 여긴다고 전한다. 여기서 말하는 ‘추억’이란 문하의 ‘강간’을 말하는데, 성폭력 범죄가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남성인 문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뿐이다. 이는 ‘일본군 병사-민족 남성’의 시선에서 전시성폭력이 ‘위안’ 행위로 회고/번역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제국-민족’의 남성이 공모하는 ‘위안하는 여성’이라는 전제 하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민족 수난사로만 문제화될 수 있고, 자국 남성에게 의한 여성 착취는 비가시화된다. 문하는 성폭력을 ‘추억’이라고 기

39) 위의 책, 27쪽.

40) 위의 책, 101쪽.

만하면서 죄책감을 털어내고 “내 울타리로 들어서는 아버지”를 맞이한다. 이 “울타리” 속에는 ‘민족의 희생자’였으나 ‘민족의 아들’을 생산한 순이도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문하가 ‘샀던’ 이름 모를 여성과 강간당했던 옥님은 포함되지 않는다.

1997년 단행본에는 정조관념이나 옥님의 강간에 관해서 미약하게나마 개작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먼저, ‘정조’라는 어휘가 사라진다. 필리핀 여성들에 대해 “그 나라 여성들은 대체로 정조 관념이 없었다”<sup>41)</sup>라고 표현한 것은 “생활의 리듬을 잃어버린 때문인 것 같더구나.”<sup>42)</sup>로 바뀐다. 또, 문하가 옥님이 소박했었다는 소식을 듣는 장면에서도 “나는 그만 실토하고 싶었다. ‘옥님을 망친 건 바로 접니다 어머니...’”<sup>43)</sup>라는 표현이 첨가되어 있다. 이 문장으로 인해 1997년 당대판의 문하는 자신의 행위가 ‘옥님을 망친 것’으로 인식하고 미미한 죄책감이나마 느끼는 인물이 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를 실토하지 못한 것이 “그 행위에 대해 나 자신이 먼저 겁에 질려 있었으니까.”라고 부연한다.<sup>44)</sup> 여기서 ‘그 행위’라는 어휘를 통해 자신의 강간을 반성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포착된다. 그러나 결말은 달라지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문하의 ‘강간’은 ‘추억’으로 기록되었다.

## 5. 결론을 대신하여

이 글은 민족주의라는 비대한 이름의 내부를 분석적으로 고찰해 보려는 의도로 작성되었다. 종종 민족주의는 고정된 실체로 인식되고, 그러한 까닭에 손쉬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민족주의에 대한 평면적 이해

41)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인문당), 89쪽;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고려원), 86쪽.

42)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당대), 162쪽

43) 위의 책, 51쪽

44) 위의 책, 52쪽.

는 식민지적 차이를 강조하는 ‘위안부’ 담론을 곧바로 민족주의로 이해하는 ‘듣기모드’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혹은 정반대의 지점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페미니즘적 시각이 종종 제국의 위치로 이끌려가기도 한다. 이에 본고는 민족주의적 ‘위안부’ 서사의 대표적 작품으로 평가받는 윤정모의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를 대상으로, 이 소설이 당대 ‘위안부’ 담론과 어떤 관계에서 집필·제작되었는지 살펴봄으로써 민족주의적 ‘위안부’ 담론의 구성과 작동 방식을 살펴보았다.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는 공식적 증언이 있기 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순이의 커밍아웃을 서사화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나, 그 증언이 결국 아들의 부계 혈통 확인을 위해 바쳐진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 텍스트다. 본고는 이러한 서사적 귀결이 당대 ‘위안부’ 담론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에서 비롯되었음을 논증하였다. 1980년대 초반 일본군 ‘위안부’ 담론은 민족 남성의 민족 수난사 쓰기의 욕망에서 생산되었는데, 이들은 일본군 병사의 시선이 투영된 문헌에 의존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남성의 글쓰기-재현되는 위안부’의 구도를 반복했다. 윤정모의 소설은 이러한 담론의 구조를 답습하여 ‘기록하는 아들-고백하는 어머니’라는 구도를 설정함으로써 순이의 발화를 아들의 역사(his-story) 쓰기로 함몰시키고 말았다.

그러나 본 논문의 목적은 『에미 이름은』의 민족주의 서사의 한계를 반복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소설이 순이의 발화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도 ‘부계 혈통의 확인’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던 조건을 탐색하려는 것이었다. 『에미 이름은』은 ‘제국의 남성-민족의 남성’이 공모하여 생산·번역한 당대 담론의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다. 남성의 ‘위안부’ 재현에서 벗어나는 순이의 발화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는 결국 ‘아들의 역사 쓰기’ 속에서 주요한 의미로 작동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충돌지점은 ‘아들의 역사’가 ‘어머니의 고백’과 같지 않음을 보여주면서 여성 구술사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나아가 『에미 이름은』은 ‘위안부’ 담론의 변화와 함께 제작됨으로써 민족주의적 담론의 한계 내부에서 어떤 변

화가 있었는지 보여준다. 특히, 97년 당대 판은 강인한 생존자로서의 '위안부' 모습을 재현하려 했고, 문하의 강간이나 정조 관념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고민했던 흔적이 나타난다. 요컨대, 『에미 이름은』은 민족주의적 일본군 '위안부' 담론의 기원과 그 구성 방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텍스트라 할 수 있다.

한편,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에는 일본인 '위안부', 필리핀 '위안부', 성매매 여성, 기생 등 민족 안팎의 비가시화된 여성이 존재한다. 소설에서 이들은 배경이나 문학적 장치로만 드러나고, 기존 연구에서도 논의되지 못했다. 이 소설이 성폭력 문제를 전면에 다루고 있음에도 이들 존재가 망각되어 온 것은 비판적 성찰이 필요한 대목이다. 민족주의 '위안부' 담론에 대한 연구는 민족주의가 비가시화한 존재들과 그들의 언어를 발견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때 의의가 있을 것이다. 기존의 담론/학술 연구 장에서 누락되어 온 텍스트를 발견하고, 더 많은 텍스트를 통해 민족주의의 바깥을 조명하는 일은 후고를 기약한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윤정모, 『아들아, 에미의 이름은 『조센삐』였다』, 『여성중앙』, 1982년 9월, 220~233쪽.

\_\_\_\_\_, 『네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 인문당, 1982, 1~101쪽.

\_\_\_\_\_,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 고려원, 1988, 1~98쪽.

\_\_\_\_\_,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 당대, 1997, 1~214쪽.

\_\_\_\_\_, 『작가의 말』, 『빛』, 東亞, 1991, 298~300쪽.

임종국, 『다큐멘터리 女子挺身隊』, 『월간중앙』, 1973년 11월, 112~120쪽.

- \_\_\_\_\_, 『정신대실록』, 일월서각, 1981, 1~309쪽.  
한백홍, 『實錄 女子挺身隊 그 眞想』, 예술문화사, 1982, 1~299쪽.  
『동아일보』, 『여성중앙』, 『여성동아』, 『월간중앙』

## 2. 단행본

- 윤미향, 『25년간의 수요일』, 사이행성, 2016, 119~149쪽.  
정희진, 『죽어야 사는 여성들의 인권』, 한국여성의전화 엮음, 『한국여성인  
권운동사』, 한울, 1999, 339쪽.  
야마시타 영애, 박은미 역, 『내셔널리즘의 틈새에서』, 한울, 2012, 172~175  
쪽, 176~177쪽.  
우에노 치즈코, 이선희 역, 『내셔널리즘과 젠더』, 박종철출판사, 1999,  
97~148쪽.  
윤명숙, 최민순 역, 『조선인 군위안부와 일본군 위안소제도』, 이학사, 2015,  
110~111쪽.  
John Bryant, *The fluid text: A Theory of Revision and Editing for Book and  
Screen*, Ann Arbor :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2,  
pp.1~16.

## 3. 논문

- 김보림, 『일본 역사교과서 파동과 그 파장:국내 대응 정책 담론의 지속과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일본교육학연구』 제8권 1호, 한국일본교  
육학회, 2004, 76~91쪽.  
김소륜,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일본군 ‘위안부’ 서사 연구』, 『국제어문』  
제77집, 국제어문학회, 2018, 303~326쪽.  
김은실, 『민족 담론과 여성: 문화, 권력, 주체에 관한 비판적 읽기를 위하여  
』, 『한국여성학』 제10권, 한국여성학회, 1994, 18~52쪽.  
윤영실, 『동아시아의 ‘장소들’과 한국근대문학의 탈영토화』, 『현대소설연구』

제67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7, 79~120쪽.

이지은, 「조선인 '위안부', 유동하는 표상」, 『만주연구』 제25권, 만주학회, 2018, 173~207쪽.

이혜령, 「그녀와 소녀들: 일본군 '위안부' 문학/영화를 커밍아웃 서사로 읽기」, 『洋橋語文研究』 제47집, 반교어문학회, 2017, 247~283쪽.

## Abstract

### Construction of Nationalist 'Comfort Women' Discourse and How it works

- Focused on the First Edition of Yun Jeong-mo's *Your Mother's Name was Chosun-Ppi* and the Aspect of its Adaptation

Lee, Ji-eun

This study was drawn up with an intention to analytically discuss the inside of the grand name of nationalism. For this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ntext of writing and the aspect of adaption of *Your Mother's Name Was Chosun-Ppi*, published before the issue of 'comfort women for Japanese soldiers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became earnest and remade and re-released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the history of 'Comfort Women' Movement. As a result, it was noted that *Your Mother's Name Was Chosun-Ppi* was created and adapted in close relation to the 'comfort women' discourse of the times. In the early-1980s, the discourse of "comfort women" for Japanese soldiers was produced from a desire to write a national history of men's suffering, and their writing depended on the literature in which Japanese soldiers' gaze was reflected, which is very problematic. *Your Mother's Name Was Chosun-Ppi* not only shares the frame of the problem of dealing 'comfort women' as a national issue but also has a fundamental limitation, sinking Suni's utterance in the son's history (his-story) writing by repeating the structure of 'man's writing-represented comfort women' as 'recording son-confessing mother.' In the edition of 1997 when the issue of "comfort women" for Japanese soldiers has been in earnest, strong

'comfort women' as survivors appear instead of 'comfort women' as victims, but they did not stand out in the text structure converged to men's perception/writing. Meanwhile, in *Your Mother's Name Was Chosun-Ppi*, there are invisible women in and out of the nation, including Japanese 'comfort women', Filipina 'comfort women', prostitutes, and Gisaeng (Korean Geisha). In the novel, they are revealed as backgrounds or literary devices only, but they have not discussed in the preceding studies. Although this novel deals with the issue of sexual violence in front, their beings have been forgotten, which needs a critical reflection.

Key words : Representation of "comfort women" for Japanese soldiers, Yun Jeong-Mo, Lim Jong-Guk, *Your Mother's Name Was Chosun-Ppi*, nationalism, history, testimony

■ 본 논문은 2019년 7월 10일에 접수되어 2019년 7월 16일부터 8월 1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9년 8월 19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